

대형마트 의무휴업 ‘뜨거운 감자’ “공휴일만 휴무” vs “규제 없애야”

공휴일 의무 적용 개정안 발의
업계 상생 등 도입 취지 고려
일각선 실질적 효과 의문 제기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문을 닫는 곳이 전체의 45%에 이르는 가운데 당초 취지를 살려 일요일을 포함해 공휴일에만 의무적으로 쉴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개정안을 정치권에서 발의하면서다. 소상공인 업계에선 ‘공휴일 의무휴업’에 더해 이 참에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몸집이 커진 중대형 식자재마트까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 달에 두번 쉬도록 한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이나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지 않고, 온라인 유통기업들의 급성장으로 온·오프라인이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각도 많다. 특히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관련 논의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이목이 쏠린다.

12일 정부와 국회, 소상공인·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대형마트와 준대형 점포가 입점해 있는 전국 기초지자체는 176곳에 달하고

이 가운데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175곳이다.

특히 이 가운데 96곳의 기초지자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44.5%인 77곳은 ‘평일’ 또는 ‘평일+공휴일’로 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구, 성동구, 동대문구에 있는 대형마트가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월 두번씩 쉬도록 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하되, 이해당자사와 합의해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등 18인, 같은 당의 오세희 의원 등 10인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공휴일에만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해 마트에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챙기고 대형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 등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자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관련 개정안에 대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중대형 식자재마트가 커져 유통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에 중대형 식자재마트도 포함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법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관련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그 이유로 ▲소비후생 저하 ▲중소유통 보호 효과 의문 ▲온라인유통 등 반사이익 ▲대형마트 쇠퇴 ▲지역상권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을 들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초 내놓은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된 지역에선 주변 상권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됐다”면서 “대규모점포 규제를 통한 중소유통 보호보다는 대·중·소 유통업체간 공존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유민희 연구위원도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위기의 오프라인 유통업’ 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 규제는 기대했던 전통시장 보호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고, 소비자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단순히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방식은 온라인 시장 성장과 소비자 행동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단편적 접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신중계 서울대 명예교수(왼쪽부터), 남창섭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 허우승 한국해양진흥공사 프로젝트금융부장, 김민강 HMM 상무, 성창경 HD현대중공업 상무, 김연태 KR 부사장이 1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KR 창립 65주년 기념 행사’에서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해운·조선업계, 글로벌 현안 대응 ‘구슬땀’

한국선급 창립 기념식서 현안 논의

국내 해운·조선업계가 트럼프발 세계 전쟁과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대한민국 대표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KR) 창립 65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 모인 조선과 해운 등 산업계 관계자들은 글로벌 해운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국내 해운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글로벌 질서 재편과 한국 해사산업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신중계 서울대 명예교수는 “그동안 세계 해양 패권은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미국이 지배해 왔으나 미국이 선박 건조 능력과 해운력, 국제 네트워크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해양 지배력이 무너지고 있다”며 “막강한

해군력만 가지고 씨파워(sea power)를 지배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김연태 KR 부사장은 “미국이 해사산업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며 “부정적이었던 조선·해운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해사산업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 해운과 조선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운 업계는 IMO의 친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민강 HMM 상무는 “선사 입장에서 친환경 규제에 느끼는 도전 과제는 기존 선박의 연료 전환이다”며 “기존 선박을 바이오연료로 하던지 앞으로 나아갈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2025년형 호텔 TV 신제품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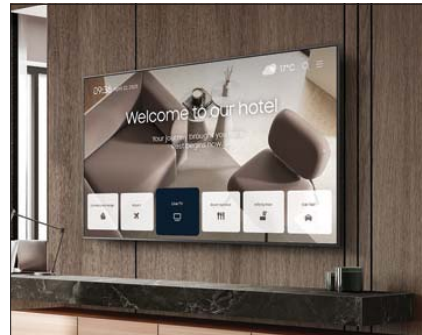
구글 캐스트 기능 탑재

삼성전자가 구글 캐스트 기능을 탑재한 2025년형 호텔 TV 신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구글 캐스트는 모바일 기기와 TV를 무선으로 연결해 콘텐츠를 공유하는 기술이다. 사용자는 복잡한 로그인 없이 QR코드 스캔만으로 TV에 연결해 스마트폰에서 보던 개인 OTT 콘텐츠를 호텔 TV에서도 그대로 시청할 수 있다.

삼성 스마트 TV 플랫폼 ‘타이젠 운영체제(OS)’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범위가 넓어졌다. 기존 넷플릭스, 삼성 TV 플러스에 더해 프라임 비디오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제품은 ‘크리스탈 프로세서 4K’를 탑재해 초고화질 영상을 구현한다. 여기



삼성전자 호텔 TV 신모델 이미지. /삼성전자

에 HDR 10+, 다이내믹 크리스탈 컬러 기술을 더해 10억 가지 색상 표현이 가능하고, 장르에 따라 음질을 자동 조절하는 ‘어댑티브 사운드’ 기능도 지원한다.

보안성도 높였다. 삼성의 보안 플랫폼 ‘녹스’와 최신 운영체제인 ‘타이젠 9.0’을 탑재해 투숙객 개인정보 보호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해민 기자 hyem@

교육업계, 디지털 기반 ‘간편체험’ 확산

윤선생 휴대폰·태블릿으로 무료체험
구몬학습 ‘구몬 스마트 독서’ 출시
메가스터디교육 온라인 교재물 운영

최근 교육업계에 디지털 기반 ‘간편 체험’ 바람이 불고 있다. 실물 교재나 전용 학습기기 없이도 학습이 가능해지면서,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운영 부담이 줄고, 이용자는 배송 지연이나 기기 반납 등의 번거로움 없이 손쉽게 체험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12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방문학습 브랜드 ‘윤선생영어교실’을 통해 휴대폰이나 태블릿만으로 무료 체험이 가능한 이벤트를 운영 중이다. 참가자는 본인의 안드로이드 기기에 전용 앱 ‘스마트베

플리’를 설치한 뒤, 영어 레벨테스트 결과에 따라 맞춤형 디지털 교재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윤선생 관계자는 “체험 절차가 간편해질수록 신청률과 사용자 만족도가 동시에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윤선생은 내달 31일까지 무료 체험 수업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천을 통해 신세계상품권, 배달의민족 상품권, CU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신청은 윤스닷컴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구몬학습은 최근 독서 상품을 디지털과 지류 형태로 통합한 ‘구몬 스마트 독서’를 출시했다. 메인도서 272권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짝공책 544권 등 총 816권이 포함되며, 이 가운데 짝공책 전권은 디지털로 제공된다. 이용자는

스마트구몬N 라이브러리를 통해 1000여 개의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유아 및 초등 대상 수학 교육을 제공하는 재능교육도 ‘재능스스로AI수학’을 통해 멀티 디바이스 학습 환경을 도입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학습이 가능하며, 게이미피케이션 요소와 보상 시스템으로 학습 흥미와 몰입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엠베스트, 엘리하이 등 자사 회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교재물을 운영 중이다. 학부모 전용 앱을 통해 교재 구매가 가능하며, B페이 캐시 제도를 통해 교재비와 배송비를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재 캐시 충전 시에는 추가 포인트도 제공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LS마린솔루션, ‘해송 해상풍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해저케이블 구축 전 공정 수행 예정

LS마린솔루션이 국내 최대 해상풍력 사업에서 해저케이블 구축 전 공정을 수행한다.

LS마린솔루션은 ‘해송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해저케이블 운송 및 설치 분

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해송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전라남도 신안군 서쪽 해상에 504MW(메가와트)급 단지 2곳, 총 1GW(기가와트) 규모로 조성돼 이는 원자력 발전소 1기 수준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LS마린솔루션은 해양조사, 해저케이블 포설 및 매설, 접속시험 등 내·외부망 구축의 전 공정을 일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건조하는 국내 유일의 HVDC 전용 포설선을 활용해 심해 및 장거리 해역의 고난도 시공 역량을 입증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LX하우시스

LX지인 인테리어필름 환경부 ‘환경표지인증’

LX하우시스의 ‘LX Z:IN(LX지인)’ 방음 인테리어필름이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화재 안전성에 이어 친환경성까지 확보하며 시장 선도 제품으로서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됐다.

12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그동안 인테리어필름의 제품 뒷면(접착면) 보

호를 위해 사용하는 이형지에는 PE(폴리에틸렌)코팅 소재가 쓰여 왔는데, 이는 한번 사용하면 필름 잔여물과 함께 폐기물로 버려야했다.

LX하우시스는 이러한 이형지 원재료를 PE 대신 점토소재로 바꿔 버려지던 이형지를 종이로 재활용해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를 통해 환경부가 제품 제조과정에서의 유해물질 감소, 자원순환이 가능한 원재료 사용 여부 등을 엄격하게 평가해 부여하는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했다.

/김승호 기자